

# “알짜 경제정보 인기비결”

화제의 진행자 BBS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씨

## 창업·재테크 방법소개 건강·여행명소도 안내 불교와 경제 접목 계획

월~토요일 아침 7시10분부터 9시까지 생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해박한 경제지식과 시원스런 화술로 홍승기교수(동국대 경제통상학부)가 진행한다. '부동산 재테크' 'IMF시대 창업' '소비자정보' '한주간의 경제 동

향 '알짜정보' 등의 코너를 신설한 이 프로그램은 창업 및 재 투자를 원하는 청취자들에게 초빙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 불침에 맞는 운동, 손콘증 예방법 등을 알려주는 '수요 건강 해법'과 '맛있는 여행지, 알뜰 여행여행지' 등을 안내해주는 '국내 명소 순례' 순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실속 정보를 전해 준다. '안녕하십니까...'는 경전 속에 녹아 있는 경제원리도 찾아 소개해주는 등 불교와 경제를 접목시킨 내용을 들려나갈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 불교방송의 종합경제 시사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를 진행하고 있는 홍승기교수.

## 불교방송 사원 29명 정리하고

### 비상기구로 팀제 운영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3월 30일 6국 14부를 7팀으로 개편하고 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29명을 정리하고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경제학과가 겸임까지 비상기구로 가동될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장과 전무직으로 기획심의팀, 포교제작팀, 교양제작팀, 보도팀,

기술팀, 관리팀, 광고사업팀 등 7개팀으로 재편됐다. 특히 포교제작팀은 기자와 아나운서, PD 등으로 구성해 포교와 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을 스크린하는 부장·국장급 간부 직제가 없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아리랑TV '만행' 뿔뿔 CATV 1분기 우수 프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98년 1/4분기 케이블TV 보도교양부문 우수프로그램에 아리랑TV(ch 50)의 '만행'(담당PD 이용기)을 선정했다. '만행'은 미국 하버드대학 석사 출신의 연극 스님이 불교 전통 수행방법의 하나인 가을칠 만행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과정을 영상화한 로드드라마이다.

### 유선방송 종교채널 의무화 국민회의 통합방송법안

불교TV 등 프로그램공급업자(PP)는 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종교채널을 의무 전송하게 된다. 국민회의는 3월30일 같은 내용의 통합방송법안을 확정했다. 한편 종교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 등이 명시되지 않아 SO측이 무료채널로 인식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  
소식



▷갈릴리 호수 위를 걷는 예수. 틴토레토 작. 1600년. 미 워싱턴미술관 소장.

## 성자들의 자유자재함 나타내

###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 물위를 걷는 기적

간의 욕망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과학의 원동력이며 인류의 미래가 되고 있다. 물위를 자유자재로 다닌 위대한 두 인물이 있다. 달마대사(?~528?)는 520년 불법을 퍼기 위해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 양무제와의 문답후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에서 9년간 명행했다고 한다. 달마대사가 갈대일을 타고서 양자강을 건너는 모습은 '折蘆渡江圖'라 해서 선화의 소재로 많이 그려지고 선가에는 '조사서래의(船渡西來意·달마가 서쪽에서 온 깨달음)'란 화두가 전해진다. 왼쪽 그림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위를 걸어 베드로 등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는 장면이다. 이 기적을 본 베드로는 곧바로 어부생활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에게 귀의해 기독교를 전파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는다. 혁림(예전 법화암 주지)



▷양자강을 건너는 달마. 해인사 벽화. 조선시대.

## 신행수기 당선작

애니, 미국까지 와서 ⑤·(꿈)

특별상(종단협회장상)

하

두는 고급스런 의상을 입은 깔끔한 인상의 중년여성이 찾아왔다. 가게 손님인줄 알았는데 그녀가 인사를 하며 물었다. 아무개를 아냐고. 맞추 전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이름이었다. 난 금방 눈물이 앞을 가렸다. 기독교인이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늘 많은 대화를 나누던 절친한 사이였다. 그러한 그녀의 죽음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죽기 이를 전에도 가게에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얘기를 나눴던 친구였기에,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며 감싸주고 격려 해주던 친구를 잃었다는 것은 예사 사람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었다.

음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안다. 나는 그분께 친구와 나의 우정과 친구의 내에 대한 마음속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친구에 대한 나의 애뜻함이 그녀의 개종권고에 한가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었는지 이번 부활절 기념에때에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단호한 내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는 자신이 한동안 카드를 보냈노라고 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카드를 보이며 "이것 말이죠" 물으니 그렇단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준 분이 계시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받게 되어 반갑다"고 했다. 그림에 다시 교회 내를 것을 권유한다. 난 정중하게 거절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집사님께서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부처님 말씀이 적힌 카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었느냐"고.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는 그녀. "한 두 장도 아니고 몇 개월을 걸쳐 보내온 카드를 찾아버리지 않았었느냐"고 물으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라고 솔직한 대답을 한다. "집사님,

## 기독교 적극전도에 분발 "이제 말·행동·원력 모아 부처님인연 맺어가야지"



그림·이준석

"내가 자매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 못하면 죽어서 친구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 친구를 봐서라도 꼭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라는 그녀의 말이 어이가 없었다. 심장관맥이 이상이 있었던 친구는 의사의 수술 권고를 미루다가 수술결정을 내린후 심장수술을 하루 앞두고 집안을 치우다가 쓰러져 그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친구의 행님을 통해 들었다. 워낙 깔끔하던 친구는 자신의 병도 어림없지 않은채 자신이 임원하면 주부가 없어 흐트러질 집안을 구석구석 치우는등 무리를 하다가 쓰러졌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어떻게 유언을 했던 말인가. 더구나 나에게 개종하라는 말을. 같은 교회 다닌다는 이분은 언제 그 유언을 들었던 말인가. 이런 저런 그녀의 말꼬리를 따질 필요없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고픈 마음

저는 이렇게 모아 두었어요. 보내주시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믿는 저는 타종교인에게 개종하라는 강요를 하지 않아요. 인연의 법칙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더 이상 권유하지 마세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것을 얘기하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집사님이 가신 뒤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신앙을 그토록 적극적으로 관유하는 힘에 대해, 어쩌면 부처님의 말씀을 펴고 전하는데 나도 그만큼 에너지가 내 마음에 있음을 안다면 그, 그 행위를 존경해야하지 않을까 하면서 미소지었다. 인연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어필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났다. 말과 행동과 원력으로 부처님 인연을 맺어가야겠다.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한009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도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할인(15원)·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한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02) 732-1522, 737-8881,  
FAX: (02) 737-0697 (02) 737-0698, 0696

PCS 단말기

NO 마진 판매!!

소리가 보인다  
PCS 016